



## ‘봄과 여름 사이’

### 작가소개

임정옥(56)님은 청양군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마을크리에이티브양성교육을 통해 발굴된 마을활동가이다. 성인들을 위한 취미미술을 배우고 있으며, 이번 마을공동체 신문 ‘청양담소’에 그림을 기고하였다.

### 지면안내

- 1면 봄과 여름 사이
- 2면 마을신문<오롱골사랑방> 탄생기
- 3면 마을교육공동체 소개/늘 봄날(시)
- 4면 적누리 남산둘레길
- 5면 떠나가는 새/용세골방의 책소개
- 6~7면 동반자를 위한 기도/계묘년을 맞아 토끼띠 인터뷰(영상)/경운기와 봄/봄을 봄(시)
- 8면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 소식

# 어수렁더수렁 사는 모습을 그리다

마을신문 <오룡골 사랑방>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2022년12월,  
청양군 내 최초로 마을신문이 발행됐다.  
칠갑지를 휘돌면 나오는 마을 오룡리,  
가을이면 온통 은행발인, 노란 오룡리에서다.  
신문 이름 <오룡골 사랑방>  
전심으로 집중취재했다.



▲ 왼쪽부터 김유현이장, 성기연, 홍순임, 고인미 글쓴이

마을신문 <오룡골 사랑방>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마을신문 <오룡골 사랑방>을 훑어본다. 1면은 드론 사진으로 담은 오룡리 전경이다. 한눈에 보아도 산이 마을을 안아주고 있다. 해 질 무렵 연기가 피어오르는 마을 풍경과 이런저런 행사 사진도 보기 좋다.

초등학생 서빈이를 소개하고, 경운기를 운전하는 아주머니 인터뷰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새로 지은 집 소개, 귀농인이 느끼는 오룡골 내음, 건강 관리 요령, 시, 우리 마을 소식, 칭찬합니다, 부녀회 소식 등 글의 빛깔이 저마다 다양하다. 속마음을 털어놓고, 마을 어르신들의 고단한 삶의 이야기와 시골살이 경험담을 토박이말로 달달하게 썼다. 돌아가신 마을 어르신을 보고 싶어 하는 진솔한 마음도 느껴진다. '막걸리 나누는 소리가 익어가고' '쌈싸름한 벗짚 냄새' '찰지게 여문 들깨 내음' 등 푸근하고 구수한 모습이 그대로 전해져 온다. 이광현주민의 연재(다음 호 글)가 다음 소식지를 기대하게 한다. 정기구독을 누르고 싶다.

다섯 용의 전설이 있는 오룡리는 칠갑저수지가 끝나는 지점에서 왼쪽 길로 약 3km 들어선 마을이다. 최근 귀농·귀촌인이 증가하며 인구도 늘어 44가구 80여 명이 살고 있다. 그중 귀농인은 14가구이고 초등·중학생이 각각 2명씩이다.

## 제호이야기



청양담소는 웃으며 정겹게 이야기를 나누는 청양을 담고 싶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청양의 이야기를 담았소의 줄인 말로 청양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신문, 주민의 소리를 담아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공동체신문으로 마을기자단이 만들어갑니다.

청양담소는 계간지로 2023년 04월 봄호, 07월 여름호, 09월 가을호, 11월 겨울호로 발행합니다.

마을기자단이 만드는 청양담소는 주민들의 기고도 받고 있으니 메일(cymaeul@naver.com)또는 전화(041-943-991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룡골 사랑방>이 기획부터 신문으로 만들어지기까지는 성기연 편집장 역할이 컸다. 청양에서 교사로 퇴직했으며, 오룡골 가을 정취에 반해 귀촌하였다. 마을에 보탬이 될 것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던 중 <청양담소>를 읽게 되었다. 마을활동가 양성교육 '마을기자단' 교육을 받으며, 오룡골만의 신문이 만들고 싶어졌다. 서로서로 마음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소소한 마을 소식을 담아보고 싶었다. 이장님과 마을주민들의 흔쾌한 반응과 적극성으로 성기연 편집장은 힘을 얻었다.

마을신문을 준비하며 과연 만들 수 있을까 걱정도 됐다. 글은 써 줄까? 반신반의로 사람들에게 제안하며 함께하자고 했다. 그동안 오룡리마을은 주민들의 의견제시와 의사 결정 과정이 원활한 소통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6명이 글쓰기에 동참했고, 귀농인과 원주민이 함께 마을신문을 잘 만들어 보자는 불이 자연스레 조성되었다.

글쓰기 인원들과 편집장은 자체 모임을 수시로 했다. 마을신문 발행 목적과 목표에 맞춰 기사 작성에 대한 기본 요령을 얘기하며 공부했다. 지면 편성과 기획, 취재 대상과 역할 분담도 정하였다. 드디어 신문은 8절지(타블로이드: 일반신문의 절반)크기로 화사한 8면이 고급 인쇄로 만들어졌다.

마을신문이 발행된 후의 주변 반응이 궁금했다. 어르신들은 지인들에게 자랑하셨고, 명절에 고향집을 방문한 사람들은 마을신문을 보고 무척 반기며

즐거워했다고 한다. 고향에서 보냈던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며, 다음 호에는 마을의 옛이야기도 실어달라는 주문도 했다고 한다. 마을 안과 밖의 사람들이 소통을 하고, 다양한 감사 인사로 수고로움을 격려하며, 서로 토닥이며 마을은 활기가 넘쳤다.

귀농 4년 차 고인미님은 기사를 읽고 '이 어르신이 이렇게 사셨구나!' 알게 되었고, 마을과 사람들 사연을 알게 되어 더 친숙해졌다고 말한다. 글쓰기가 두려웠다는 홍순임님은 '다른 사람들도 두렵지만 안 쓰겠다는 사람은 없는' 분위기를 보고 용기를 얻어 써보고 싶었고, 내 글이 인쇄되어 신문으로 나온 것을 보니 쓰길 잘했다고 한다. 마을이장 김유현 씨 반응은 어땠을까? "귀농·귀촌인들이 많은데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마을공동체를 위한 마을신문은 좋은 도구로서 소통과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칭찬합니다' 대상자를 찾아보니 사람들의 장점을 찾게 되고 좋은 면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 어떤 이는 걱정인 줄 알았는데 글을 통해서 마을 언니의 삶을 알게 돼 가깝게 느껴졌다고도 한다. 마을 재산으로 되어 있는 땅의 등기를 마쳤다는 소식도 알게 되었다. 마을 운영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소식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호에도 쓸 글이 많다. 98세 어르신의 경험담 이야기를 쓸 것이고, 코피가 나면 생 축을 뜬어 줘 내어(짓이겨) 지혈시키는 글도 쓸 것이다. 처음 보는 신기한 민간요법을 소개하고, 기록으로 남길 것이

다. 다듬지 않아 투박한 텃말(고유어), 입으로 전해져 온 마을 이야기, 오룡리마을에서만 통용되는 마을 언어 그대로 글을 쓸 것이다. 마을기자들의 다짐이 와 닿는다. 충만한 열정으로 엮어질 <오룡골 사랑방2>가 기대된다.

오룡리마을에는 지개길이 있다. 예전에 빨감 나무를 하러 다녔던 길이다. 이 길을 트래킹 등산로 2·4시간 코스로 만들었다. 이 코스는 매월 2·4주 토요일에 주민들이 함께 걷는다. 마을을 품고 있는 산 자락을 한 바퀴 돌아오는 코스다. 또한 마을 청장년이 꽃상여를 매는 전통 방식의 장례문화가 남아있다. 상여는 돌아가신 분의 관을 꽃단장하여 묘지까지 마을 분들이 함께 이동하는 도구로, 장례문화는 마을 사람들이 자연과 살아온 흔적들과의 이별식이고 추모이자 축제가 되고 있다.

오룡리마을은 마을신문뿐만 아니라 마을 지도도 만들어 볼 계획이라 한다. 골목길과 집의 위치, 마을에서 부르는 옛 지명과 곳곳의 이름, 새로 지은 집에는 누가 살고 있는지 관광지도처럼 만들고 싶어 한다. 첫 신문에 다 신지 못한 글이 남아있다. 그리고 풍부한 글감이 기다리고 있다. 다음 신문은 8월 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추석 때 방문하는 귀향민을 위한 배려이다.

<글·사진 전귀정 마을기자>

**늘 봄날**

<김남선 마을기자>

❖ 그대가 꽃보다 아름다워요  
그대의 투명하고 순수하게 비추어주는 마음 때문입니다

❖ 그대가 사랑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맑고 고은 향기로운 사랑을 하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 그대가 나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지순하게 모순을 던져 버리고 열정적으로 비추어주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 햇살 닮은 마음으로 사랑을 말하는  
그대는 더욱더 꽃보다 아름다워요

❖ 그대가 꽃보다 아름다운 것은  
순백한 마음으로 영혼을 적시며  
오직 아름다운 날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애쓰는  
그대가 사랑보다 더 아름다운 향기로운 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시뻘찬 사무국장을 만나다!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소개



**Q 마을교육공동체 연구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으시지요?**

**A** “청양 대치면이 고향으로 20년차 교사인 이병찬입니다. 아들 셋을 둔 아빠입니다. 선배들도 계시지만 교육하기 좋지 못한 인식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청양의 실정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역할이 있고, 그래서 의무감도 있습니다. 수업이든 교육과정이든, 교실 안과 밖에서의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청양에서의 행복한 기억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청양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시네요.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해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A** “21년 하반기에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단계까지 왔고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인 모임을 하고, 운영위는 두 달에 한 번 모입니다. 마을교사·마을학교·마을축제가 참된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전활동·본활동·사후활동이 1회성이 아닌 진일보한 사례를 만드는 것이 1차 목표로, 학교 후와 주말에도 아이들의 돌봄이 이루어지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역량을 돕겠다는 취지를 위해 학교와 연결이 중요합니다. 정보공유를 통해 학교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중간다리 역할입니다. 체험처에서 마을문화와 어른을 만날 때 체험에 인식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청양의 애착심과 마을 어른에 대한 존경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 선생님들이 의미를 미리 설명하고

활동 후 마무리도 중요합니다. 교육과정의 성취를 통해 청양에서 이런 교육을 받았다는 자부심을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회원은 청양출신으로 16명입니다.”

**Q 작년 말에 성과공유회에서 초등·중등 사례를 마을 관련분들과 교육청과 함께 나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A** “네. 올해 2월에는 ‘얼마나 준비되었는가? 얼마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의 주제와 교육철학과 사례들을 가지고 ‘교육과정 함께 만드는 주간’에 청양초·장평초·합천초·청송초에 찾아가서 나눴습니다. 학교마다 회원들이 아닌 분들에게 설득을 하는 과정도 포함되었습니다. 앞으로 민·학이 먼저 만나서 우리의 고민을 같이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2차 목표입니다. 홍보와 총회 준비모임에서 조례재정으로 지원을 간소하게 하고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Q 앞으로의 당부와 포부로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 “꿈같은 얘기지만, 청년들에게 청양에서 계속 지내라는 권유가 쉽지 않지만 삶에 대한 가치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청양이라서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모이고 협의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애절한 마음을 표출하는 연구회가 되어 민·학으로 확대되어 가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서종필 마을기자>



# 아시나요? 적누리의 남산 둘레길



내가 살고 있는 적누리 뒤편으로 '적누지'가 있다. 눈이 내리면 썰매를 타고, 물이 쪼글 쪼글 얼면 빙어도 잡던, 나의 옛 추억이 가득 스며있는 장소이다. 나는 어린 시절을 이곳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동네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적누지에 둘레길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된 지는 몇 년 안됐다. 큰 덤프트럭들이 오고 가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수지 주변으로 둘레길이 생겼던 거였다. 우리 동네 뒤에 둘레길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은 나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호기심이 발동해 둘레길을 걸어보았다.

처음 둘레길을 걸을 때의 느낌은 '힘들다' 였다. 평소 산행에 익숙한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오고 갈 수 있는 코스일 수 있겠지만, 가파른 언덕은 나에게 숨이 벅차도록 힘들었다. 둘레길의 첫인상은 나의 체력으로는 어렵지만 한 트래킹으로 자리잡았다. 그 후 둘레길은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로 시간이 지났다.

봄바람 살랑이던 어느 봄날, 무작정 걷고 싶어 엄마와 함께 둘레길에 도전했다. 역시나 예전에 처음 마주했던 가파른 언덕 앞에서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비죽비죽 나왔지만, 꼭 참고 걸었다. 자연은 나의 수고를 알아주는 듯 고요하며 찬란했다. 윤슬, 저수지의 잔물결에 햇빛이 비쳐 반짝이며 나를 응원하는 듯하듯.

윤슬을 보며 가쁜 숨을 한 김 식히고 저수지 길을 따라 평지를 쭉 걷는다. 저수지를 끼고 평지가 이어진 길옆으로는 잘 자란 소나무가 있어, 가득 솔향을 맡으며 걷게 된다. 쭉 걷다 보면 길이 두 갈래로 나뉘는데, 왼쪽 흰색 문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면 '남산'의 남쪽으로 다시 가파른 언덕이 시작된다. 언덕을 올라가다 보면 정자가 나온다. 정자에서는 백세공원 방향으로 청양 읍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정자를 기준으로 길은 왼쪽과 오른쪽으로 갈린다.(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길을 꿰뚫고 있다.) 왼쪽 길은 청신여중 방향으로 빠르게 내려갈 수 있는 길, 오른쪽 길은 길게 돌아서 청신여중 방향으로 내려



▲ 적누지 둘레길의 옆으로 난 소나무의 정경

가는 길이다. 다시 도전을 했던 날은 첫술에 배부르려마는, 미처 이곳까지 올 생각을 못 하고 다음을 기약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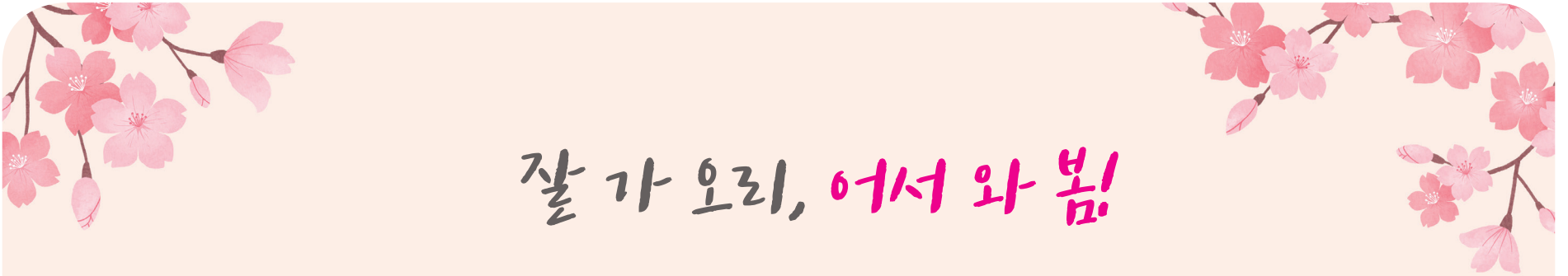
그 후 나는 남산트래킹에 재미를 붙였다. 주말 아침 눈을 뜨자마자 남산트래킹 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커피를 내리고 전날 사두었던 빵을 챙겨 부지런히 발걸음을 움직였다. 더구나 청신여중을 통해 가는 오른쪽·왼쪽 길을 모두 다 가보았으니, 다음 목표는 정자가 아닌 남산의 정상이다. 완전한 등산!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우리 동네, 나의 생각을 일깨워 준 적누지 둘레길, 둘레길에 대한 궁금함과 호기심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지금도 정자의 운치를 몰랐을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도 본인의 마을에 어떤 명소가 있을지 구석구석 걸어보길 바란다.

이 봄, 봄 따라 찾아온 꽃처럼 걸어보자. 가장 익숙한 장소에서 내가 몰랐던 새로운 장소, 우리 동네만의 명소를 만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글·사진 강다솔 마을기자〉



▲ 적누지의 윤슬



## 잘가오리, 어서와봄!

겨울철새인 가창오리가 어느 날부터 청양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칠갑산자락에 눈이 쌓여야 겨울이 왔음을 느꼈는데, 삭막한 눈과 밭에 삼삼오오 모여 배를 채우는 가창오리의 모습에 겨울이 왔음을 느꼈고, 이제는 가창오리의 살찐 모습에 봄이 왔음을 느낍니다. 얼마나 영특한지 겨우내 품었던 논밭을 농부들에게 양보하고, 저 멀리 추운 시베리아의 대지를 땀흘려 먼 비행을 시작합니다. 정들었던 가창오리들이 봄이 되어 날아가지만, 꽃망울이 맺히고 새싹이 돋아남에 외로움을 느낄 겨를이 없습니다. 가창오리들아, 부디 시베리아에 무사히 도착해서 올겨울에 다시 만나자!

〈글·사진 안진환 마을기자〉



용/세/글/방  
봄날 읽기 좋은 책



매끄럽게 뽀은 길 앞 표지판에 새로운 시작이라는 문구가 사랑거리고

멍든 마음에 새살이 돌아옵니다.

그대 내게 와 마른 가지에 벚꽃 잎을 활짝 피워 우수수 핑크빛으로 시야를 물들일 때

그때를 봄이라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 '봄' 전문.

## 남궁원, 네가 오니 봄도 왔다

어려운 말도 없고 물음도 필요치 않은 시 같은 수필집, 남궁원의 『네가 오니 봄도 왔다』는 읽는 그대로 마음에 와닿습니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편안한 사람 같습니다.

쉬운 말로, 부담 없는 언어로, 노랑·연두·분홍 빛깔을 내는 향기 나는 글들을 읽습니다. 바람이 없는 봄 햇살 앞에 앉으면 등과 이마가 따듯해지듯, 한 장 한 장을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갈 수 있습니다.

봄은 한 해를 시작하는 첫걸음이고, 들뜬 숨을 토하는 생명의 향연이고, 한들한들 아지랑이 같은 속삭임입니다. 자동차 보조석에 두고 문득문득 한 쪽을 읽습니다. 다정하고 보드라운 햇살이 기지개를 켤 때, 스르륵 넘기다 멈춘 책장에 눈길을 내기도 합니다.

일장춘몽이어도 아쉬울 것 없을 찬란한 봄,



어여쁜 색으로 마음을 물들여 보고 싶다면 동행해도 좋을 친구입니다.

〈윤선숙 독자기고(비봉면)〉



독자기고



독자기고

동반자를 위한 기도 **안숙재(청양면)**



민족상잔의 비극 6·25 전쟁, 내 나이 열세 살이었다. 내 또래 사람들은 나물 캐서 배고픔을 달랠던 과거의 뼈아픈 시절을 모두 공감할 것이다.

나는 전쟁으로 갑작스레 부모님을 잃고 전쟁고아가 되었다. 늙으신 할아버지, 어린 동생 남매, 이렇게 살아남게 되어 소녀가장으로 할아버지 수발과 어린 동생들 끼니 걱정을 해야만 했다.

요즘 아이들 같으면, 마냥 뛰어다니며 공부나 하고 컴퓨터 게임이나 하며 노는 나이에 꽃처럼 활짝 피어 보지도 못하고, 사오년이란 세월을 폭격을 피해 매일 피난 다니며, 공부도 중단한 채 궁핍한 유년시절을 보냈다.

열아홉 살에 외할아버지 중매로 양반이란 말만 믿고는 맞선도 보지 않은 채 어느 집 도령과 혼인을 하게 되었다. 시할아버지, 시할머니, 시아버지, 서모

시어머니까지 층층 슬하에 시어머니가 젊으니 시누이·시동생이 다섯이고 시어머니께서 늦둥이까지 임신한 상태였다. 12대 종갓집으로 1년에 열일곱분의 제사를 모셔야 하는 대종가의 종부였다. 부유하지도 못한 가세에 제사가 어찌나 많은지 하루 저녁에 두 번 지내는 날도 있고, 한 달에 두 번 지낼 때도 있으니 조상들 모시는 일 또한 살아계신 부모님들 모시는 일보다 더 고된 일이 되었다. 두 번의 명절과 가을걷이쯤 되면 시제까지 그야말로 1년에 20번의 제사를 지내는데, 힘들다는 내색도 못 하고 그저 새댁의 본분이 이런 고역이었나 싶어, 친절에 두고 온 가족들이 보고 싶어 눈시울만 적시곤 하였다.

얼굴도 익히지 못했는데, 남편은 결혼한 지 45일 만에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다. 어느 날 김칫독 뚜껑을 열자 갑자기 역한 냄새로 구토가 나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임신을 한 것 같았다. 그런데 좋아할 수만 없고 되려 걱정이 앞섰다. 휴전은 했지만 총성이 그치지 않겠는데 만약 남편이 다쳐서 상이군인이나 되면 어찌나, 죽어서 돌아오면 어찌나, 걱정되어 잠이 오질 않았다.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였는데 간절한 나의 마음을 들어주실 분이 하나님이 라면 제발 우리 남편이 무사히 집에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밤마다 무릎 꿇고 기도했다.

남편한테서 가끔 편지가 온다. 오늘은 훈련받으러 가서 몇 명 다쳐서 의무대로 실려 갔다고 하며 “걱정 마, 나는 포병부대 탱크 기사니까 팔다리 잘릴 염려는 없어, 조금 있으면 휴가 갈 거야. 내 걱정 말고 부모님 모시고 잘 있으라고요” 하며 나를 위로해 주었다. “내 군번 10288650, 자기가 좀 알아야 할 거 같아.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말아야 하하하~~~”

“그런 일은 없어야 할 테지만 세상일을 누가 알아?” 하면서 가끔 놀라게 해주던 남편이었다. 몸은 지치고 피곤하여 고달팠지만, 남편의 농담 섞인 위로가 삶의 활력이 되어 고된 시집살이도 이길 수 있었다. 임신 이야기를 써서 답장했다. “당신이 휴가 나올 때쯤이면 옥동자를 안겨 줄 것 같아요. 아빠 없는 아이 만들지 않게 몸조심하세요.”라고 보냈다.

나는 매일 기도했다. 총성이 멈추는 평화스러운 대한민국이 되어서 남북통일이 되고 부강한 나라, 희망과 꿈이 넘치는 나라, 자손만대 물질이 풍부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말이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36개월 군 생활을 끝마치고 남편은 제대했다. 집에 돌아왔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의 안부를 묻는데 “손 좀 봐유”, “다리 좀 봐유”, 어디 다치지 않았는가 물어봐도 아무 대답이 없다. “왜 말을 안해유” 하니까 자초지종 이야기를 해주었다. 손과 다리는 멀쩡한데 귀가 들리지 않는단다. 작은 소리는 알아듣지 못하고 크게 소리를 질러야 알아듣는데, 왜 그러는 거냐고 물었다. 탱크 운전하는 포병부대에서 훈련을 받으려면 귀를 막고 하는데, 운전을 하던 중 한쪽 귀를 막은 솜이 빠져나갔지만 주을 수가 없어 그냥 훈련을 받다가 귀 고막이 떨어져서 귀가 먹어 왔다고 한다.

그때는 많은 지뢰 때문에 총 들고 훈련하는 병사는 손 다치기가 일수고 다리 잘리는 사람도 많았다고 한다. 귀 한쪽 먹은 것은 상이군인도 아니라며 한평생 보상도 받지 못하고 한쪽 귀가 어두운 채 평생을 고생한 남편이다. 귀는 먹었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왔으니 감사하다. 제대 후 큰아들 밑으로 아들들, 딸 셋을 더 얻어서 먹고 살기는 힘들어도 아들

**청양담소** #볼호

마을 공동체 신문

**마을영상기획단**

박정기 활동가

(39년생 언니 얘기 한번 들어볼려?)

(인) (니) (최)

**계묘년 토끼띠 인터뷰**



# 영상으로 만나는 '청양담소'

청양군 마을 크리에이터 양성교육을 통해 발굴된 박정기 마을활동가가 제작한 영상기사로, 2023년 계묘년을 맞아 청양군에 거주 중인 39년생 토끼띠 안숙재 어르신을 인터뷰했다. 영상은 QR을 통해 만나 볼 수 있다.

부자, 딸 부자가 되었다. 아이들은 착하고 바르게 잘 자라 주어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알고 이웃 사랑할 줄 알고, 국회의원이나 장관은 못 됐지만 근면 성실하여 남들로부터 욕먹지 않고 칭찬받고 살고 있으니 무엇을 더 바랄 게 있나, 하나님께 늘 감사하다. 지금은 딸 같은 며느리 셋, 아들 같은 사위 셋, 손자, 손녀가 12남매이고 손주 며느리 손녀사위까지 얻어서 증손자가 다섯 살이 되었다.

한평생 가정과 남편을 위해 기도했는데,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한다. 교회에 가겠다고 하니 남편이 종갓집 며느리가 무슨 교회냐고 한사코 말려서 마음만 주님을 갈급했지만, 마음 놓고 믿음 생활을 못 하던 중 막내 사위 전도로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 21년 전부터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다. 어느 날 남편은 우연히 뇌경색이라는 병을 얻게 되어 지금은 왼쪽 뇌가 다 손상되어 뇌졸중에 치매까지와 화장실 출입하기도 버겁고, 약에 의존하지 않으면 큰일이 생길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자녀들 얼굴도 잃어버리고, 지금은 영양주간보호센터에 다니고 있는데 집에 오면 나를 보고 “우리 집사람 맞

아유?” 하며 내 손을 꼭 잡고 또 재차 “우리 안식구 맞아유?” 하고 묻는다. “예, 맞아유” 하면 자세히 쳐다보고 안도의 숨을 내쉬는 모습을 보면 눈시울이 젖고 가슴이 먹먹해진다.

주일이면 남편 손을 붙잡고 교회에 간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픈 곳곳마다 하나님 보혈로 씻어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남은 인생 건강 축복하옵소서’ 하고 기도한다. 나라와 가정을 위해 내 인생 다하는 그 날까지 나의 평생 동반자를 위해 기도할 생각이다. 몸은 병들어 기억은 잃었지만, 자기 정신 잠깐 돌아올 땐 “여보 미안해, 돈 못 벌어서 미안해, 고생시켜서 미안해” 한다. “아녀유, 당신이 아직도 내 곁에 있어서 정말 고맙고 감사해유. 당신이 내 곁에 있으니 따뜻한 밥해 먹고 뜨거운 된장찌개라도 끓여서 먹으니 행복해유. 이렇게라도 내 곁에서 오래오래 살아 줘유.” “당신 없어 봐, 찬밥 한 덩이 차려놓고 김치 부스러기 먹을 거 아녀유? 안 그러유?” 내 말을 아는지 모르는지 내 손을 꼭 잡고 천사처럼 빙긋이 미소를 짓는다.

철모르던 어린 시절 청춘남녀가 우연히 부부가 되어 63년 긴 세월 희로애락 드라마 만들기가 이제는 너무 힘에 겹다. 아들딸 낳을 때, 공부 잘해 우등상 받아올때, 자식들 짝 맞춰서 내보낼 때, 손주들 태어날때 행복했고, 증손주들 태어나니 더 행복하다.

늦가을 북풍 낙엽 쌓이듯 나의 추억도 산허리에 걸린 저녁노을처럼 수북이 쌓인다. 인생 팔십고개 길다면 긴 세월이지만 서글프기도 하고 소중한 추억들이 더 많은 거 같다. 이런 소중한 기억이 절대 사라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오늘도 병든 남편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은 고통 없이 천국 가게 하옵소서. 우리 금쪽같은 내 새끼들은 전쟁의 비극이 절대로 닥치지 않게 하시고, 나처럼 전쟁고아 되지 않게 하소서.’

평화로운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남편의 흐릿한 기억 속에 내 이름 석 자 안숙자, 나를 절대로 잊지 않게 하소서’



독자기고

봄을 봄

〈안미선(청양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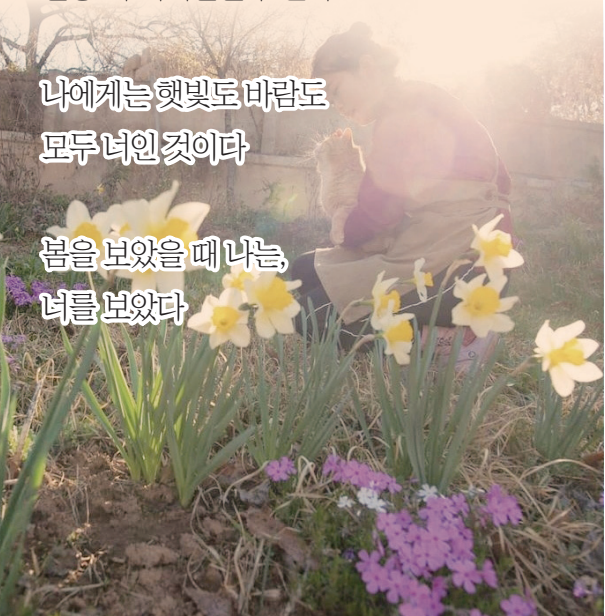
햇살은 따스하게 내려오고  
살랑 바람이 앞머리 끝을 훑는다  
그제서야 잿빛 공터는 초량게 물들고  
비로소 저 꽃은 피어나는구나

기분 좋은 변화 속에서  
나는 봄을 보았다

너는 따스한 시선으로 나를 훑고  
살랑 내 머리칼을 넘긴다

나에게는 햇빛도 바람도  
모두 너인 것이다

봄을 보았을 때 나는,  
너를 보았다



독자기고

경운기와 봄-〈최미자(청양읍)〉

이른 새벽부터 귀에 익은 정겨운 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옆집 아저씨의 경운기 소리입니다. 겨우내 잠들었던 경운기를 깔끔히 정비 하였지만 아저씨의 기침소리처럼 경운기는 거친 엔진소리를 내며 봄을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셔서 해가 서쪽 산으로 기울 때까지 분주하게 돌아다니시며 봄을 맞이하는 옆집 아저씨. 아저씨의 모습을 보면 어릴적 이 생각납니다.

지난 어린 시절엔 모든 농사일을 이웃끼리 품앗이를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봄에 모를 심을 때면, 다 같이 모여 일손을 돕고 밥을 먹었는데 그때는 마을 잔치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 날이면 어머니는 참을 준비하였습니다. 보자기에 싸 고무대야에 넣어 머리에 이고 논



밭으로 가시는데 그때의 그 뒷모습이 이따금 아른거립니다. 때론 아버지가 품앗이를 다녀 오시면 흙투성이가 된 장단지엔 거머리가 앉아 아버지의 피를 빨아먹고 있었습니다. 거머리가 있는지도 모른 채 일만 하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뿐만 아니라 옆

집 아저씨, 그 옆집의 아주머니, 그리고 많은 동네 어르신들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와 푸른 하늘이 열리면 그 하늘을 볼 시간도 없이 고개 숙이고 일만 하셨습니다. 이따금 경운기와 트랙터를 보면 그 옛날 어렵게 농사를 지으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끝맺음으로 가족들을 위해 땀 흘려 일하는 농부들의 뒷모습을 보니 봄이 왔음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 청양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상반기 어린이교육 시작!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청양군통합급식팀  
문의: 041-944-2026

청양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청양군 내 어린이 급식소 중 영양사가 고용되지 않은 100명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실천을 위하여 위생적인 급식환경을 조성 및 영양수준을 향상을 위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이다.

본 센터는 상반기 어린이 영양교육으로 편식예방 “콩이좋아”를 주제로 교육 및 병아리콩샐러드 만들기 실습이 이루어지고있으며 3월13일부터 시작하여 4월 14일까지 한달동안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대상시설은 어린이집2개소 유치원1개소 지역아동센터3개소 총 16개소이고, 16개소 시설 중 9개소는 실시하였고 4월14일까지 7개소를 더 실시할 예정이다.



## 농식품가공창업아카데미 4기 교육 시작!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가공지원팀  
문의: 041-944-2027

2020년 1기 교육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3기 교육을 끝마치고 올해 4기 농식품가공창업아카데미를 시작했다.

농식품가공창업아카데미는 청양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하여 가공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가공 기초 이론과 실습을 통해 가공지식과 기술을 습득시켜 청양 농업인을 육성하고자 한다.

농식품가공창업아카데미는 기본과정, 선택과정, 장비실습과정 3개 과정으로 구성된다. 현재 기본과정인 건식반, 반찬반, 습식반 2회차 교육이 진행중이며, 식품전문가 강사진의 지도하에 잼, 주스, 장아찌, 피클, 선식, 차류 등 다양한 제품군을 교육하고 있다. 교육기간은 총 16주이며 모든 교육을 수료한 교육생은 청양군농산물가공협동조합에 가입 후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시설을 이용하여 안전한 가공식품을 생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농식품가공창업아카데미를 통해 청양군에서 농민가공이 활성화되어 보다 안정적인 소득 창출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

